

## **Session 3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Prayer**

### **효과적인 기도의 특징들**

#### **I. INTRODUCTION**

##### **도입**

- A. There are different ways to pray (see future sessions), but here we will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prayer that is effective or that makes a difference and accomplishes its intended goal. Prayer is first about relating to God, but it is also about results that serve God's will on the earth.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앞으로 진행될 세션 참조).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효과적인 기도, 혹은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일이기도 하다.

*"It is not enough to begin to pray...but we must patiently, believably continue in prayer until we obtain an answer." George Müller*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그러나 우리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조지 뮐러

- B. The apostle James was known in the early church as a great man of prayer. He gave the church invaluable insight into this subject. He emphasized effective prayer and what it accomplishes. It is the destiny of every believer to release the power of God through his simple prayers.

야고보 사도는 초대 교회에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교회에 매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그는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 강조했다, 이 기도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지를 강조했다. 순전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다.

*<sup>15</sup>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sup>16</sup>The effective,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sup>17</sup>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and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ould not rain...<sup>18</sup>And he prayed again, and the heaven gave rain... (Jas. 5:15-18)*

<sup>15</sup>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 <sup>16</sup> ... 의인의 [한글 KJV: 효과적이고 열렬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sup>17</sup>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sup>18</sup>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5-18)

- C. James taught that the *prayer of faith* heals the sick (v. 15) and that it accomplishes much (v. 16). Our prayers accomplish much more than we can gauge with our five senses. Our perspective on life changes dramatically when we believe that our prayers really make a difference.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과 (15 절), 많은 것을 성취함을 가르쳤다 (16 절). 우리의 기도들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한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극적으로 변화된다.

- D. James highlighted four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prayer: prayer rooted in faith; prayer in the context of good relationships; prayer from a lifestyle of righteousness; and prayer that is earnest.

야고보는 효과적인 기도의 네 가지 특징을 강조했다: 믿음에 뿌리를 둔 기도; 좋은 관계 안에서의 기도; 의로운 삶 가운데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E. **Prayer rooted in faith:** this speaks of prayer that is rooted in a threefold confidence in God.

믿음에 뿌리를 둔 기도: 이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확신에 뿌리 받은 기도를 말한다.

1. It is prayer with confidence in Jesus' authority over sin, sickness, and Satan.

이는 죄와 병과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에 확신을 가진 기도를 말한다.

2. It is prayer with confidence in the blood of Jesus that qualifies weak people such as us to be vessels that release His power and receive His blessings. We boldly enter God's presence by the blood of Jesus (Heb. 10:19). We are not to shrink back due to shame or guilt, for He has given His own righteousness to us as a free gift (2 Cor. 5:21).

이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도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권능을 풀어놓고 그분의 축복들을 받는 통로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히 10:19). 우리는 수치심이나 정죄함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값없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고후 5:21).

3. It is prayer with confidence in the Father's desire to heal, set free, and bless His people by the power and work of the Holy Spirit (Lk. 11:13).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 기도를 말한다 (눅 11:13).

*<sup>11</sup>If a son asks for bread from any father among you, will he give him a stone?...<sup>13</sup>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Lk 11:11-13)*

<sup>11</sup> 너희 중에 아버지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sup>12</sup>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sup>13</sup>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1-13)

F. **Prayer rooted in faith:** Jesu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aying with faith (Mk. 11:22-24).

믿음에 뿌리를 둔 기도: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막 11:22-24).

*<sup>24</sup>I say to you, whatever things you ask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and you will have them. (Mk. 11:24)*

<sup>24</sup>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1. Our faith is anchored in the knowledge of Jesus' authority over every power that exists.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능력과 권세 위에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둔다.

*<sup>18</sup>Jesus...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Mt 28:18)*

<sup>18</sup>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2. We are to pray with faith that our prayers will actually produce results as God answers them by releasing a greater measure of His blessing and power. Jesus affirmed the need for faith. He affirmed the Roman centurion who had great faith (Mt. 8:10), and He told two blind men,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to you” (Mt. 9:29). Jesus was unable to do mighty works where there was great unbelief (Mk. 6:5-6). He rebuked the unbelief of the disciples who did not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rose (Mk. 16:14).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그분의 더 큰 축복과 권능을 부어주시며 응답하시는 실제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큰 믿음을 가진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셨으며 (마 8:10), 두 명의 맹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마 9:29). 예수님께서서는 큰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 강력한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마 6:5-6). 그분은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들의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으셨다 (막 16:14).

3. A man brought his epileptic son to Jesus’ disciples and later complained that they could not cure him (Mt. 17:14-21). When the disciples asked why they could not drive the demon out of the boy, Jesus stated the reason simply: “Because of your unbelief.”

어떤 사람이 간질병이 걸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고, 그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마 17:14-21). 제자들이 자신들이 왜 이 소년으로부터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없었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셨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sup>19</sup>The disciples came to Jesus privately and said, “Why could we not cast it out?”<sup>20</sup>Jesus said to them, “**Because of your unbelief...if you have faith as a mustard seed,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Mt. 17:19-20)*

<sup>19</sup>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sup>20</sup>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한글 KJV: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 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 17:19-20)

- G. **Prayer in the context of good relationships:** In teaching on effective prayer, James exhorted us to confess our sins to one another (Jas 5:16). We follow this exhortation most often in context to strong relationship with others. Some are committed to growing in relationship with others, but are content to have a weak prayer life. Others are committed to grow in prayer, but are content to have weak relationships. The Bible sets these two values as complementary, not competing.

**좋은 관계 안에서의 기도:** 효과적인 기도를 가르침에 있어서, 야고보는 우리가 죄를 서로에게 고할 것을 권고했다 (약 5:16). 우리는 다른 이와 견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를 제일 잘 행해나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성장시켜나가는 것에 헌신되어 있지만, 연약한 기도의 삶에 만족해버리곤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에는 헌신되어 있지만, 연약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곤 한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가치를 상호보완적인 것들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1. A strong prayer life will eventually lead to strong relationships with people. Prayer is not about being anti-relational or antisocial. True prayer has the opposite effect. It is all about love—loving God and people. People of prayer should be the most energized in love.

강건한 기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람들과의 튼튼하고 깊은 관계로 이끈다. 기도는 우리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게 되거나, 반 사회적이 되도록 이끌지 않는다. 참된 기도는 정 반대의 효과를 낸다. 이는 모두 사랑에 대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기도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넘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2. The Lord cares so much about relationships that husbands must honor their wives so that their prayers are not hindered. The measure of a husband's effectiveness in prayer is connected to the measure with which he honors his wife. He can pray with eloquence in public, but if he speaks in unkind ways to his wife in private, his prayers are hindered.

주님은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편의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그가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공개 석상에서 유창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무정하게 말한다면, 그의 기도는 막히게 된다.

<sup>7</sup>*Husbands...giving honor to the wife...that your prayers may not be hindered. (1 Pet. 3:7)*

<sup>7</sup> 남편된 자들아 ... 너희 아내와 ...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3:7)

3. 1 Peter 3:7 is significant for the global prayer movement. As the prayer movement matures, so the emphasis on honor in marriage will increase, especially honor for wives.

벧전 3:7 절은 전 세계 기도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다. 기도 운동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며, 특히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 강조될 것이다.

- H. **Prayer from a lifestyle of righteousness:** Commitment to a lifestyle of righteousness is essential to cultivating an effective prayer life (Jas. 5:16). This biblical condition is often minimized, even by some who are deeply involved in the prayer-and-worship movement today.

**의로운 삶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의로운 삶에 대한 헌신은 효과적인 기도의 삶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약 5:16). 이 성경적인 조건은 오늘날 기도와 예배 운동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종종 간과되곤 한다.

<sup>16</sup>*The effective,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Jas. 5:16)*

<sup>16</sup> ...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1. The righteous person in this passage is any believer who *sets his heart to obey Jesus* as he seeks to walk in godly character. Setting our hearts to obey is very important, even if we fall short of mature, consistent obedience. I have never met a person who is so mature in righteousness that he is above all temptation and never falls short in his walk with God.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경건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한 성도를 말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한 점 부족함 없는 성숙한 의를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2. The prayers of a “righteous person” include the prayers of imperfect, weak people who *sincerely seek* to walk in righteousness even as we stumble in our weakness.

“의인”의 기도는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의로움 가운데 행하기를 **진실하게 구하는**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를 포함한다.

3. The Lord responds to His people because they seek to keep His commands and do the things that are pleasing to Him.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구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노력하기 때문이다.

<sup>22</sup>*And whatever we ask we receive from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1 Jn. 3:22)*

<sup>22</sup>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2)

4. Prayer is no substitute for obedience. I have met those who imagine that if they pray and fast more, they can walk in a little immorality or be dishonest in their finances or slander people who do not treat them in the way they want. They think that being extra zealous in the spiritual disciplines will balance out areas of persistent compromise.

기도는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들이 작은 음행을 행하거나, 재정에 있어 투명하지 않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그들은 영적인 훈련에 특심을 가지면, 삶에서 지속적인 타협의 영역을 가지고 있더라도 균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한다.

<sup>2</sup>*An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Isa. 59:2)*

<sup>2</sup> ...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2)

5. Prayer is far more boring and difficult if we seek to live one part of our lives as if it belonged to God and another part as if it belonged to u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our lifestyle and our ability to enjoy prayer (Mt. 5:8). Ongoing, willful compromise in our lives greatly hinders our prayer life and our capacity to agree with God in prayer.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다른 부분은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도는 훨씬 더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 된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마 5:8). 우리 삶에서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타협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크게 방해하며,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는 수용력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6. When we come up short in our obedience, we must acknowledge it and confess it, rather than seeking to rationalize it. We call it sin, we repent of it, and we freely receive God’s forgiveness. Then we “push delete” and stand with confidence in God’s presence.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이를 합리화하기보다, 이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죄라고 말해야 하며, 회개해야 하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값없이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움 버튼”을 누르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된다.

7. Walking in obedience is not about seeking to earn the answers to our prayers; it is about living in agreement with love because God is love. Some who teach on prayer overlook the necessity of obeying God. It is more popular to emphasize *only* our authority in Christ without mentioning the necessity of setting our heart to obey Jesus.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기도들에 대해 응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사랑에 동의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더 대중적이다.

*<sup>21</sup>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it is he who loves Me. And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manifest Myself to him.”(Jn. 14:21)*

<sup>21</sup>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

- I. Prayer is not about informing or persuading God, but about connecting with Him in relationship. He is looking for conversation and dialogue with us. Some believers think that by praying more they earn the answers to their prayers. God wants us to talk with Him more because He loves relating to us. We do not *earn* answers to prayers by *either* our persistence *or* our obedience.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가르쳐드리거나, 그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분과 관계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의 대화를 원하신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거나 순종을 한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거나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II. EARNEST PRAYER

### 간절한 기도

- A. *Prayer that is earnes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earnest prayer is because it is one of the primary biblical conditions of effective prayer.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효과적인 기도의 중요한 성경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sup>17</sup>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and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ould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land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Jas 5:17)*

<sup>17</sup>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약 5:17)

- B. The work of the kingdom is based on who Jesus is and what He did on the cross, not on how we feel. God answers our prayers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and His desire to partner with His people. If we measure ourselves by a wrong idea of what passion or earnestness in prayer is, then we will be tempted to pray much less.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과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근간을 둔다. 이는 우리의 느낌이 어떠한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며, 자신의 백성들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갈망으로 인함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간절한지를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더 적게 기도하고 싶어지게 될 것이다.

- C. First, earnest prayer comes from a heart that is engaged with God. To be earnest implies that we are not praying by rote or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It is the opposite of speaking our prayers mindlessly into the air. We are to focus our minds toward the Lord when we pray.

첫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간절하다는 것은 암기한 것을 기도한다던가,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는 별 생각 없이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기도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 D. Second, earnest prayer is prayer that is persistent (Mt. 7:7-8; Lk. 11: 5-10; 18:1, 7). The Greek word *proseuche*, translated as *earnestly* in James 5:17, literally means, “he prayed with prayer,” which is an idiom expressing persistence in prayer.

둘째, 간절한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한다 (마 7:7-8; 눅 11: 5-10; 18:1, 7). 야고보서 5:17 절에서 **간절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슈케이**는 문자적으로 “그가 기도를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기도를 뜻하는 관용구이다.

1. Elijah refused to be denied answers to prayers that were in agreement with God’s will.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2. We must never stop asking and thanking God for the answers of the prayers that are offered in His will until we see them with our eyes. We must be persistent. We are to pray “with all perseverance” (Eph. 6:18) and to “labor fervently” (Col. 4:12) in prayer.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진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까지 그분께 구하며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인내로” 기도하며 (엡 6:18), “애써 기도해야” 한다 (골 4:12).

3. Jesus taught a parable emphasizing persistence in prayer (Lk. 11:5-10). The Greek verbs for “ask,” “seek,” and “knock” are in the continuous present tense (v. 9). Thus, we are to ask and keep on asking, seek and keep on seeking, knock and keep on knocking.

예수님께서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비유를 가르치셨다 (눅 11:5-10).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9 절).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 계속해서 구해야 하며, 찾고 계속해서 찾아야 하며,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한다.

<sup>8</sup>...yet because of his persist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as many as he needs. <sup>9</sup>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Lk. 11:8-9)

<sup>8</sup>...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sup>9</sup>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눅 11:8-9)

4. When we highly prize something, we seek the Lord for it with all our hearts (Jer. 29:13). When we ask casually, with little effort to focus our minds on the Lord, or when we stop praying for something that is in God’s will, we show that we do not value it very much.

우리가 어떤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전심을 다해 주님께 구한다 (렘 29:13).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구한다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우리가 이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나타낸다.

<sup>13</sup> *And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Jer. 29:13)*

<sup>13</sup>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3)

- E. Earnest prayer doesn’t have to be loud. We should not conclude that our prayers are ineffective or that we lack earnestness simply because we do not have a loud, aggressive public prayer style.

간절한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기도 소리가 크지 않거나 공격적인 회중 기도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거나,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1. Passion in prayer is not mostly about energy and volume; it is about being engaged from the heart with the Lord while praying and persevering in faith without quitting. So keep at it and do not draw back, even if your prayer style is softer than that of others.

기도의 열정은 에너지가 넘치며 소리가 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를 기도해나가며, 당신의 기도 스타일이 다른 이들보다 부드럽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2. Some conclude that they lack the necessary “passion” for God to answer them because they do not express themselves with great emotion or volume. If we define earnest prayer by shouting, then I guess about 99% of our prayers would be classified as non-passionate prayer, because most of our prayers are offered as whispers from our hearts throughout the day.

어떤 사람은 자신이 큰 소리로, 혹은 엄청난 감정들을 쏟아내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필요한 “열정”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곤 한다. 만일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소리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우리 기도의 99%가 열정이 부족한 기도로 분류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속삭임으로 드러지기 때문이다.

3. Hannah prayed for a child with great anguish because of her barrenness. She wept as she spoke from her heart so softly that Eli the priest could not hear her (1 Sam. 1:13, 27).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백하며 흐느꼈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삼상 1:13, 17)

4. The NKJV translators used the word *fervent* in James 5:16 to convey the concept of *earnestness*. This word is not found in Greek manuscripts. It was inserted because the translators sought to emphasize the strength of the word “earnestly” in James 5:17.



NKJV 성경을 번역한 이들은 야고보서 5:16 절의 열렬함(한글 KJV, fervent)을 간절함(earnestness)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번역자들이 야고보서 5:17 절의 “간절함(earnestly)”의 단어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다.

- F. Earnest prayer doesn't depend on what we feel. Some draw back in their prayer lives because they think they must feel God's presence when they pray. Thus when they feel discouraged or tired, or when they simply feel nothing, they assume their prayers will be of no effect, and they stop praying. I have good news—our prayers are effective even when we are discouraged, or not in a good mood. We offer our prayers to the Lord who is in a good mood and is not tired.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의 삶에서 뒷걸음질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낙심하거나 피곤할 때, 혹은 단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 자신의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기도를 멈춘다. 그러나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효과적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기분이 나쁘지도 않으시다.

- G. Weak people can pray earnestly. Elijah was a weak man with a nature like ours. He was prone to fear and discouragement, and he faced the same temptations that we do; yet his prayer life was effective (1 Kgs. 17-19). James emphasized this to give us courage to pray in our weaknesses.

연약한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었고, 우리가 겪는 동일한 유혹을 겪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삶은 효과적이었다 (왕상 17-19 장). 야고보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 이를 강조했다.

<sup>17</sup>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and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ould not rain; and it did not rain...<sup>18</sup>And he prayed again, and the heaven gave rain... (Jas. 5:17-18)

<sup>17</sup> 엘리야는 우리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sup>18</sup>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7-18)

- H.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God's will,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God will answer us. For God to “hear” our prayers means that He approves of them, no matter how impossible it seems.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신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그분이 이를 승인하신다는 것이다.

<sup>14</sup>Now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1 Jn. 5:14)

<sup>14</sup>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4)

- I. We must not assume that a prayer is outside of God's will when we don't receive an immediate answer to it. God may answer in a *different way* or *different time* than we expect (Isa. 55:8-9). The delay of answered prayer is designed to provoke earnestness in us to continue to seek Him.

우리가 기도를 한 후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이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시간에 응답하실 수 있다 (사 55:8-9). 지연된 기도의 응답은 우리 안에 그분께 계속해서 구하는 간절함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 III. THE DIVINE AND HUMAN SIDES OF EFFECTIVE PRAYER

#### 효과적인 기도에 대한 하늘과 인간의 측면

- A. The divine side of effective prayer is Jesus's work on the cross and His power being released through us. We receive God's favor as a free gift. When we combine agreement with God as seen in our believing, righteous, earnest prayer, then we experience more of what is freely given to us by Jesus. God doesn't love us more when we live in greater agreement with Him, but He is able to use us more, and we are able to experience a greater measure of blessing in our life.

효과적인 기도에 대한 하늘의 측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과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 없는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의로우 가운데,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 없이 부여된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과 더 큰 분량으로 동의함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분량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 B. The human side of effective prayer is coming into agreement with God—living and praying in accordance with His will, heart, and priorities. As we pray with faith, we pray in agreement with God's authority and Jesus's work on the cross. As we live righteously, we live in agreement with God's character. As we pray persistently, we live in agreement with God's priorities.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 인간이 감당할 부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과 마음, 그리고 우선 순위에 따라 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에 동의함으로 기도하게 된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 순위에 동의하게 된다.

- C. Effective prayer is earnest prayer that is in agreement with God's will and is offered in faith in context to building strong kingdom relationships and walking in righteousness.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동의된 간절한 기도이며, 강건한 하나님 나라의 관계들을 세워가며, 또한 의로우 가운데 행하며 믿음으로 드러지는 기도이다.

- D.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prayer include the following conditions:

효과적인 기도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포함한다:

- Faith (Mt. 21:21-22; Mk. 11:23-24; 1 Jn. 5:14-15)
  - Right relationships, including husbands honoring wives (1 Pet. 3:7)
  - A righteous or holy life (Ps. 66:18; Isa. 59:2; 1 Jn. 3:19-22)
  - Earnestness or persistence (Isa. 30:18-19; 62:6-7; Mt. 7:7-11; Lk. 11:5-13; 18:1-8; Jas. 5:17)
  -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1 Jn. 5:14-15)
  - In the name of Jesus (Jn. 14:13-14, 26; 16:23-24)
  - Pure motives (Jas. 4:2-3)
  - Boldness (Heb. 4:16)
  - Forgiveness (Matt. 6:15; 5:23-24)
  - Prayer of agreement or unity (Mt. 18:19-20)
- 믿음 (마 21:21-22; 막 11:23-24; 요일 5:14-15)

- 의로운 관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 (벧전 3:7)
- 의로운, 또는 거룩한 삶 (시 66:18; 사 59:2; 요일 3:19-22)
- 간절함, 또는 끈질김 (사 30:18-19; 62:6-7; 마 7:7-11; 눅 11:5-13; 18:1-8; 약 5:17)
-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일 5:14-15)
-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 14:13-14, 26; 16:23-24)
- 깨끗한 동기들 (약 4:2-3)
- 담대함 (히 4:16)
- 용서 (마 6:15; 5:23-24)
-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마 18:19-20)

#### IV. OUR PRAYERS REMAIN EFFECTIVE FOREVER

우리의 기도들은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 A. The prayers of God’s people *avail much or accomplish much* (Jas. 5:16). Indeed, our prayers accomplish much in this age *and* in the age to come. The challenge is in not being able to measure fully right now the extent to which our prayers impact us, other people, and the nations.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많은 일을 성취한다 (약 5:16). 실제로, 우리의 기도들은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도 많은 것을 성취한다. 여기서 도전이 되는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와 다른 이들, 그리고 열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현재에 완전히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 B. All the prayers prayed in God’s will throughout history are stored in bowls near God’s throne. The bowls of prayer will one day be “full” (Rev. 5:8). The fact that the bowls of prayer in heaven “fill up” implies that God does not forget our prayers. We may forget them, but God does not.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러진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대접들에 쌓이고 있다. 이 기도의 대접은 어느 한 날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계 5:8). 하늘의 기도의 대접들이 “차오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sup>8</sup>*When He had taken the scroll,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each hav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Re 5:8)*

<sup>8</sup>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sup>3</sup>*Then another angel...was given much incense, that he should offer it with the prayers of all the saints...before the throne. (Rev. 8:3)*

<sup>3</sup>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 8:3)

- C. The Lord will never forget the love we show toward Him in ministering to others in prayer or in other acts of service (Heb. 6:10). He would consider it an “injustice” if He forgot anything we do in love for Him. Knowing that our “weak” prayers are not forgotten motivates us to persevere.

주님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향해 드린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히 6:10).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행한 어떤 것을 잊는 것을 “불의”로 여기신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들이 잊혀지지 않음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기도해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sup>10</sup>For God is not unjust to forget your work and labor of love which you have shown toward His name, in that you have ministered to the saints, and do minister. (Heb. 6:10)*

<sup>10</sup>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0)

- D. Our prayers avail so much that they remain effective, or “alive,” in God’s sight long after this life. I assume that they “live” forever in God’s heart. Even the prayers from the distant past—from thousand of years ago—are still effective in God’s presence. I believe that the prayers we offer today will still be effective in the distant future,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from now. There is continuity between what we pray and do now and what happens in the age to come.

우리의 기도들은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큰데, 이 기도들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이생의 삶 이후에도 하나님의 눈 앞에 “살아있다.” 나는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천년 전 이전에 드린 아주 먼 옛날에 드린 기도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아주 먼 미래, 지금부터 수백,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행하는 것과 다가올 시대에 일어날 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 E. The prayers for revival and justice did not “die out” after they were partially answered by the revivals in history. Our prayers have a significant, partial release in our generation and a greater, more complete release in the future, even in the age to come.

부흥과 정의를 향한 기도들은 역사 가운데 부흥을 통해 부분적으로 응답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들은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부분적으로 풀어지며, 미래에, 그리고 다가올 세대에서도 더 큰 분량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풀어지게 된다.